

조정 전 노력하자



6월 15일(목) 14시 에스제이엠에서 2023년 집단 교섭 9차 교섭이 열렸다. 사측 10개 사 18명, 노동 조합 15개 사 57명이 참가했다.

교섭 사전회의에서 지부 교섭위원들은 중앙교섭 상황, 조정신청 계획, 7월 금속노조 파업 계획과 더불어 원만한 집단교섭 진행을 위한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.

조정 전 노력 부탁

이규선 지부장이 먼저 “조정신청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조율되도록 노력해달라. 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인사했다.

사측 대표 말레동현 조희수 상무는 “지난 교섭에서 3개 사만 임금을 제시했는데 오늘은 교섭 전 추가 논의까지 거쳐 최대한 정성껏 제시하겠다. 이후 교섭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는 의미있는 교섭이 되었으면 한다”며 4차 제시안을 내밀었다.

4차 제시 어떤 실마리?

사측의 올 해 4번째 제시안에서는 임금과 고용보장 합의에 관해 논의가 집중됐다.

임금 다음 주까지 최대한 제시 요구

1) 임금 안을 5개 사가 추가로 제시해 10개 사 중 8개 사가 첫 임금 안을 제시했고, 계양전기와 신한발브가 추후제시하겠다고 했다.

신한발브 김현호 분회장은 “신한 상황이 어려우니 ‘추후제시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들은 수년간 고통을 감수하고 있어 더 이상은 어렵

다. 올 해는 임금 안을 적극 제시해달라”며 노사 모두에 상황을 설명했다.

계양전기 사측은 “작년 올해 회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금 인상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”고 했고, 서명관 지회장은 “회사 어렵다고 조합원들은 추가 연장까지 하고 있다. 여러 문제 산적해있는데 임금이라도 해결하고 가자.”고 강조했다. 사측은 다음 주에는 안을 내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이다.

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합의는 부담?

2지부 공동요구안 중 [고용안정] 부분은 1차 제시 때부터 ‘현행유지’ 안 그대로인데, 사측은 말레, 모베이스전자 등 최근 합류한 사업장이 집단교섭의 기존합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취지라 진전된 안이라 설명하며 ‘일방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’는 문구가 있어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니 각 사별 특수성에 따라 부담이 있는 ‘합의’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. 기존 조항이면 충분하다는 사측 입장과 고용보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한국와이퍼 사태와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니 한번 더 ‘속고’하라는 조합의 입장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쳤다.

교섭 후 ‘국제 정치 정세 - 윤석열정권 성격과 노동조합의 역할’이라는 주제로 장창준 한신대 교수의 교육이 이어졌다.

10차 교섭은 22일(목) 14시 신한발브에서 열린다.